

민주 '청년비례대표' 흥행 저조 비상

1차 132명 모집에 현재 후보 등록 단 1명 불과

투표 방식·공모 마감 연장 등 특단 대책 필요

민주통합당이 20~30 세대의 지지를 견인할 핵심 카드로 내세웠던 '청년 비례대표' 카드가 오히려 소통과 참여 저조로 전혀 흥행을 일으키지 못하면서 빛이 바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권역별 청년 선거인단 투표를 통해 청년 비례대표 예비 후보를 선출하는 등 지역에서부터 바람을 일으켜 나가는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광주·전남지역 청년들이 민주통합당 청년 비례대표 후보 공모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지역의 20~30세대들이 처한 현실을 타개하고 호남 청년의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4일 민주통합당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28일부터 청년 비례대표 후보자 공모가 시작됐으나 지금까지 단 1명이 등록하는데 그쳤다.

공모 마감일인 13일까지는 아직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남았으나 현재의 추세를 감안할 때 최악의 경우, 전체 후보군이 10여명에 그치면서 '청년 비례대표' 카드가 흥행을 참패하지 않는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당초 민주통합당은 청년 비례대표 선정과 관련, 후보자들이 대거 몰릴 것으로 보고 지역과 성별, 연령대 등을 고려, 132명을 1차 후보로 선정할 뒤, 토론과 정책발표, 상호 투표 등을 통해 32명, 16명, 8명 등 순차적으로 후보를 압축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현실은 당초 예상과는 크게

빛나기 아예 후보군이 형성되지 않으면서 흥행 자체가 성립되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특히, 청년 비례대표 도전을 꿈꾸고 있는 일부 청년들도 선거인단 투표가 아닌 후보자간의 상호 투표와 청년 배심원단(1천명) 투표 방식 등에 대해 강한 불만을 토로하며 아예 공모를 포기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청년 비례대표 선출이 각 권역별 청년 선거인단 투표 등을 통

해 예비 후보자를 압축하는 등 청년의 참여가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이와 관련, 민주통합당 일각에서는 최민희 최고위원(청년국회의원 선출 특별위원) 등 시민사회세력이 청년 비례대표 선출을 주도하면서 현실을 흥행과 접목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오는 15일 치러지는 민주통합당 전당대회와 관련, 당내에 어수선한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청년 비례대표 흥행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를 반영하듯, 이날 열린 민주통합당 최고위원회에서는 오는 13일로

예정돼있는 공모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흥행 저조에 대한 대책 등 청년 비례대표 선출 방식 전반에 대해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최인기 최고위원은 "국회의원 4명과 당연직 최고위원에 임명되는 청년 비례대표를 선출하면서 이에 대한 정확한 당규도 만들지 않고 경선을 진행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특히, 지역 및 광역별 경선을 거치지 않는다는 것은 흥행을 담보할 수 없다는 점에서 구체적인 경선안을 다시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디도스 몸통 밝혀라"

민주통합당 원혜영 공동대표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원 대표는 "선관위 디도스 공격은 민주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데라"라며 "최구식 의원의 비서기를 이름 석자만 말해도 일만한 사람이 뒤에 있다고 한 만큼 사법 당국은 몸통을 밝히고 엄정히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습뉴스

"대선 후보들 興 강세지역 출마해야"

김부겸 언론간담회

민주통합당 지도부 경선에 나선 김부겸 후보는 4일 순화규·정동영·정세균 등 당내 대선 후보들이 4·11 총선에서 한나라당 강세지역에 출마하도록 권유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광주지역 언론 간담회에서 "저를 비롯한 부산 출마를 선언한 문재인·문성근에 이어 유력 대선 주자들이 서울 강남을 위시한 한나라당 텃밭에 출마해 격전지를 만든다면 총선에서 민주당은 압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특히 "3선 이상 다선의 원들에게 적진을 돌파하는 용단을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자신이 3선을 한 경기 군포 지역구를 버리고 대구 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또 "민주당 집권을 위해 당내 대선 후보 경선은 더 많은 인재들에게 기회가 열려야 한다"며 과반 득표자가 나올 때까지 투표를 계속하는 결선투표제 도입을 제안했다.

이종형기자 glee@kwangju.co.kr

원혜영 "국민의 힘으로 변화 일궈내자"

정당대표 연설

민주통합당 원혜영 대표는 4일 "총선과 대선에 있는 올레는 하늘이 준 기회"라며 "국민 스스로의 힘으로 변화와 희망을 일궈내자"고 말했다.

원 대표는 이날 KBS 1라디오에서 방송된 정당대표 연설에서 "올해 총대선을 통해 국민이 대한민국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다"며 "국민은 할 수 있고 준비해 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대로는 안 되며, 이런 세상을 내 아이에게 물려줄 수 없다면서

SNS를 통해, 온·오프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변화의 열망이 터져나왔고, 이미 지난해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국민은 변화를 명령했다"고 말했다.

원 대표는 "1% 재벌과 특권층이 지배하는 나라가 아니라 99%가 열심히 일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서민과 중산층이 주인이 되는 나라를 위해, 대결이 아니라 평화와 협력의 한반도를 위해 대한민국의 방향을 바꿔달라"고 호소했다.

이종형기자 glee@kwangju.co.kr

여 '공천물갈이' 친박계 희생론 급부상

주성영 "나를 포함 우리모두가 고민해야"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현역 기득권 포기 등을 골자로 한 대대적인 공천개혁에 나선 가운데 친박계 내부에서 물갈이 공천의 물고기를 트기 위한 자발적 희생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이는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4·11 총선 공천과정에서 강력한 인적 쇄신을 단행할 수 있도록 친박계부터 스스로 기득권을 내려놓음으로써 정치적 부담을 덜어주는 취지로 보인다.

특히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가 당 지지도보다 5%p 이상 낮은 현역 교체라는 이른바 5% 룰을 제시하고 비대위가 텃밭 TK(대구·경북) 등 영남권을 우선 물갈이 대상으로 지목

한 상태여서 영남권 친박계 의원들의 자발적 불출마 선언이 잇따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친박계 초선인 손범규 의원은 4일 "친박계에서 먼저 솔선수범함으로써 세신의 밑알이 돼야만 과감한 개혁이 가능하다"면서 친박 의원들의 불출마 가능성에 대해 "상당 부분 진행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실제 예상을 웃도는 현역 교체지수에 충격을 받은 TK 의원들 사이에서 "스스로 거취를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상돈 비대위원이 최근 TK 물갈이 시발점을 제기한 가운데 매일신문

과 대구KBS가 지난달 20~23일 에이스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해 전남 공개 여론조사에 따르면 대구 12개 지역의 유권자의 53.7~77.5%가 현역 교체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박계 재선의 주성영 의원은 "비대위의 얘기가 쉽지 않지만 그게 민심이다. 나를 포함해 우리 모두가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남권 못지않게 수도권 텃밭인 강남 벨트에 대한 물갈이 압박도 거세지고 있다. 한나라당 강세지역인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권과 경기도 분당 등지에서는 새 인물 수혈을 위해 자발적으로 영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비대위와 당 안팎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이종형기자 glee@kwangju.co.kr

정가 라운지

통합진보당 시·도당 창당대회

통합진보당 광주시당은 5일 오후 7시 광주서구문화센터에서, 전남도당은 오는 7일 오후 4시 순천문화예술회관 대강당에서 각각 창당대회를 개최한다.

창당대회는 이정화·유시민·심상정 대표와 함께 하는 생생토크쇼와 문화공연, 총선 예비후보 소개 등으로 진행된다. 공동 대표단은 5일 창당대회에 앞서 지역 기자들과 간담회를 열어 통합진보당의 비전과 계획, 지역 현안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금호타이어와 기자자동차 등 현장을 방문한 데 이어 각계 지역인사들과 간담회도 진행한다.

최종만, 7일 순천대서 북 콘서트

순천시장 출마를 준비중인 최종만(56)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장은 오는 7일 오후 2시 순천대학교 70주년 기념관 우석홀에서 '동박꽃' 출판기념회를 북 콘서트 형식으로 연다.

순천 출신으로 광주시 행정부시장을 역임한 최 청장의 책은 동박꽃의 여원을 찾아가는 '동박꽃'과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성장 과정에 겪은 아픔을 동박꽃의 이미지로 엮은 '동박꽃', 순천의 역사를 소개하는 '동백단 등 4개의 단편소설로 이루어져 있다.

임현모, 7일 출판기념회

임현모 민주통합당 국회의원의 예비후보(광주 북갑)가 오는 7일 오후 2시 광주시 북구 풍향동 동신고 체육관에서 '차 한잔의 대화' 출판기념회를 갖는다.

'차 한잔의 대화'는 임 예비후보가 그동안 언론에 기고했던 칼럼

과 자신의 지론 등을 엮어 모았다. 이날 출판기념회는 한명숙 전 총리와 손학규 전 대표, 문성근 백만민단 대표, 이학영 진보통합시민회의 상임의장, 김부겸 의원 등의 영상메시지와 축사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최경환, 전남대서 출판기념회

최경환 민주통합당 국회의원의 예비후보(광주 북을)가 7일 오후 2시 전남대 대강당에서 자전적 에세이 '배움의 시간' 출판기념회를 갖는다. 김대중 대통령 마지막 비서관을 지냈던 최 예비후보는 출간한 책은 지난 4개월 동안 자신이 트위터와 페이스북, 블로그 등에 연재했던 글을 자전 에세이 형식으로 엮었다.

특히 이번엔 출간된 최 예비후보의 책은 자신의 유년시절부터 대학시절 민주화 운동과정, 2차례 투옥 등 재야운동 시절, 김대중 전 대통령과 함께했던 청와대 공보비서관과 김 전 대통령 서거 당시 병상에서 겪었던 일을 솔직·담담하게 기술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경호, 총선 출마 선언

김경호(46) 제주대 언론학과 교수가 4일 여수시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총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민주통합당 입당 뜻을 밝힌 김 교수는 이날 현역 의원의 심판론을 앞세워 새로운 정치를 실현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김 교수는 "뇌물수수료 전일 시장과 시·도의원들이 무더기 사법처리되고 인제 외부 유출, 인구 감소 등 많은 문제가 발생했는데도 책임지는 정치인이 없다"며 "현역 의원들은 민주통합당 경선에 스스로 나오지 않는 게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최권열기자 cki@/동부취재본부=예정열기자 yjj@/동부취재본부=박성태기자 mihang@

대학편입 정인 대거진입 대폭증가!

2013학년도 대학편입을 위한 초석다지기 과정, 편입개론과정 대개강!
편입 1:1 문자상담 : 010-7766-1254

대학편입이란? 수능결과를 뒤엎는 또한번의 찬스!!

재수	vs	편입
1학년입학 / 4년재학		3학년입학 / 2년재학
고등교과목 전과목(약 16과목)		영어(인문) / 영어,수학(자연)
각 군별 1회 지원		복수지원 대학별 지원(최대 20회 이상 복수지원 가능)

편입합격자 10명중 7명은 김영출신!
김영편입학원
광주동부경찰서 뒤(062)227-8088
www.kimyoung.co.kr 개강:2월1일